

## 황금어장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양 호민

작년 여름 때의 일이다. 갓 일경이라는 계급을 달았던 나는 교통관리계 업무 지원 지시를 받았다. 일경 급 대원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가서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은 당시 우리 경찰서 의경부대의 관례였기 때문에, 타부서 파견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그 부서가 교통관리계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막막했다. 업무 지원을 나가는 부서 중 외근 업무를 주로 하는 교통관리계는 당시 의경들의 기피 부서였을 뿐만 아니라, 하필 내가 근무할 시기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나 하며 시간을 보낼 줄로만 알았던 나는 그 결정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휘요원께 다른 대원들로 대체가 안 되겠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막내가 당돌하게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교통관리계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교통관리계 업무는 처음에는 무난한 듯했다. 교통관리계에 처음 간 날, 교통단속 업무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들으니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교통단속 업무는 말 그대로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였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의외로 간단해 보여 나는 안도할 수 있었다. 내가 앞으로 단속할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방심하며 미소를 보였던 나에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단속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주로 단속근무를 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근무할 곳은 물건을 옮기는 트레일러들이 주로 다니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신호를 너무 안 지키거든. 위에서 운전자들보고 빨리 짐을 나르라고 지시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엇그제 크게 사고도 났어.”

그러곤 얼마 전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다. 그 사고 현장에는 충돌한 두 대의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트레일러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트레일러와 충돌한 모양이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트레일러의 앞부분은 종잇장처럼 납작해져있었다. 그런 차들이 교통 단속하는 내 옆을 썩썩 달릴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미소를 머금었던 입가는 파르르 떨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근무지역 으로 나섰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신항 도로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로에는 온통 트레일러밖에 없었고, 그 큰 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가다 순찰차 크기의 승용차가 큰 트레일러와 함께 달리게 될 때면 그 모습은 마치 '큰 입 베스'와 이에 위협받는 '토종 물고기'를 연상케 했다. 금방이라도 승용차를 집어 삼킬 듯 하는 트레일러의 질주는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와 직원은 서둘러 단속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와 색깔의 정보가 내 무전기에 들려왔다.

"(삐리리리), 8\*\*4, 8\*\*4, 흰색 트레일러, 신호위반"

나는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수고하십니다. OO경찰서 일경 양호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OO번 신호대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약간 긴장했었지만, 운전기사는 순순히 절차에 응해주었다. 서명을 받은 나는 다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재빨리 통고서를 발부해 그에게 건넸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벌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첫 단속으로 뿌듯해하던 나에게 갑자기 욕이 들려왔다. 바로 단속을 당한 그 운전자였다.

"야이, XX놈아. 누가 이걸로 끊으래. 넌 집에 XX도 없냐? 아 XX, 열 받네."

당황한 나는 통고서를 다시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리둥절한 채 왜 욕을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해있는 그는 일진이 사납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에도 몇몇 차량을 단속하면서 위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고, 나는 그때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차례 욕을 먹어야만 했다. '개념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욕을 먹으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다.

'교통단속을 하는데 내가 융통성을 보이는 게 가능한가? 단속된 사람을 위반내용에 맞게 처리하는 게 내 일의 전부인데...'

2시간 정도의 단속 후,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직원 한 분께 여쭙보았다.

"주임님, 저는 어제 배운 대로 절차에 맞게 단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게 욕을 한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세상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을 해주었다.

이유는 이랬다. 해당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는 차량들은 대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으로, 트레일러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벌점 누적은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고, 7만원이라는 범칙금 역시 그들에게는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왔던 터라, 이전에 이를 단속했던 경찰들은 벌점이 없고 범칙금 액수가 적은 위반 항목으로 단속된 것처럼 격하처리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관행을 알 리가 없었던 나는 원칙대로 그들을 단속 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융통성이 없는 의경이라며 욕을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욕을 먹은 이유와 함께 왜 옛날부터 이 지역이 몇몇 경찰들에게 황금어장이라고 불렸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이 되어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위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반하는 차량이 줄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적을 쉽게 쌓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이 일부 경찰들에게 '황금

어장'이라고 불린 것이다. 처음 격하처리를 할 때는 그들을 위한 선심성 행위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인들에게도 실적을 쉽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고 좋은 것이었겠지만, 나는 이를 경찰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해 해당 지역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찰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느새 이 지역을 편안히 실적을 쌓고 갈 수 있는 곳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경찰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위반 내용을 격하처리 할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격하처리를 요구하며 덧댄 논리(예를 들면, 위에서 계속 시간압박을 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제동거리가 길어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했다. 위에서 시간압박을 한다고 해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내던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제동거리가 긴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춰 천천히 주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말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이 지역의 관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찰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몇몇 트레일러 기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사무실에서 본 이곳에서의 끔찍한 트레일러 사고도 그런 잘못된 의식만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한낱 의경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욕을 먹으며 위반된 내역에 맞게 냉정히 단속을 시작했다. 그 때문인지 내가 교통관리계에 배치 받고 난 후 우리 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는 악성 민원전화도 많이 걸려왔다. 물론 관할 구청에도 그랬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황금어장을 망치기로 한 내 결심을 굽힐 수 없었다. 이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아들인 운전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웃는 것을 소망했기에 열심히 그들과 씨름했다.

그리고 끝내 현실은 바뀌었다.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었다. 마스크에도 거론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해당 지역 곳곳에 설치된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비롯한 몇몇 경찰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누가 이런 나의 고생을 알아준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은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내가 바른 사람이어서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과거의 신행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병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직분에 벗어난 행동이라면 그만큼 경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게 바로 내가 지난여름, 황금어장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말이다.